

‘탄소증가 제로’ 신학철의 야심... 2.2억그루 감축 효과

(LG화학 부회장)

(소나무)



‘2050 탄소중립 성장’ 선언

전세계 사업장에 국내 첫 ‘RE100’ 자동차 1250만대 탄소 배출 감축 2050년 총 3000만톤 이상 억제

LG화학이 ‘2050 탄소중립 성장’을 핵심으로 하는 고객과 사회를 위한 지속가능성 전략을 발표했다.

LG화학은 6일 ‘환경과 사회를 위한 혁신적이며 차별화된 지속 가능한 솔루션 제공’을 목표로 ▲기후변화 대응 ▲재생에너지 전환 ▲자원 선순환 활동 ▲생태계 보호 ▲책임 있는 공급망 개발·관리 등 5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LG화학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50 탄소중립 성장을 선언했다. 국내 화학업계에서 탄소중립 성장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뉴스시스

탄소중립 성장이란 사업 성장에 따른 탄소 배출량 증가와 동등한 수준의 감축 활동을 펼쳐 탄소 배출 순 증가량을 제로(Zero)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LG화학은 2050년 탄소 배출량을 지난해 배출량 수준인 1000만톤으로 억제하기로 했다. 현재의 사업 성장성을 고려했을 때, 2050년 LG화학의 탄소 배출량은 약 4000만톤 규모로 전망돼 탄소중립 성장을 위해서는 3000만톤 이상을 감축해야 한다.

3000만톤은 내연기관 자동차 1250만대가 1년동안 배출하는 탄소량으로 소나무 2.2억그루를 심어야 상쇄할 수 있는 수준의 규모다. 이를 위해 LG화학은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전 세계 모든 사업장에 RE100(리뉴어블 에너지 100)을 추진한다. RE100은 100% 재생에너지만으로 제품을 생산하겠다는 것으로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거나 발전 사업자로부터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LG화학은 RE100을 통해 2050년 탄소 배출 전망치의 60% 이상을 감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수급 방식과 국가별 제도를 고려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 적극 실행해 나갈 방침이다. 또,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공정·설비에너지 효율화, 탄소포집저장 활용(CCUS) 기술 개발 및 도입 등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LG화학은 생산 제품은 물론, 사업장 배출 폐기물까지 재활용하는 순환경제 시스템을 구축해 환경 보호와 사회적·경제적 가치까지 창출해 나갈 예정이다. 친환경 PCR(포스트컨슈머리사이클드) 플라스틱과 생분해성 플라스틱 소재 등 폐플라스틱 자원의 선순환을 위한 제품 개발에 적극 나선다.

현재 LG화학은 PCR PC(소비자 사용 후 재활용한 폴리카보네이트) 원료 함량이 60%인 고품질·고함량의 친환경 플라스틱을 개발해 글로벌 IT 기업에 공급하고 있으며, 향후 PCR PC 원료 함량을 최대 85%까지 높이고 제품군도 ABS와 폴리올레핀 등으로 지속

확대하기로 했다.

LG화학은 폐배터리 재사용 및 재활용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먼저 폐배터리 재사용을 위해 고객사에 납품했던 배터리를 수거하고, 잔존 수명을 예측하는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재사용 배터리로 만든 전기차 충전소용 에너지 저장 장치(ESS) 시범 시설도 곧 오픈할 예정이다. 폐배터리 재사용 후에는 국내의 생산 거점에 리튬, 코발트 등 원재료를 추출할 수 있는 자원 선순환 고리를 구축해 원재료 확보의 안정성을 높이고, 노동·환경 등 공급망 이슈까지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지속가능성 전략이 모두 달성되는 2050년은 LG화학이 창립 100년을 넘어 다음 세기로 나아가는 중요한 시점”이며 “지속가능성을 핵심 경쟁력으로 삼아 혁신적이며 차별화된 지속가능 솔루션을 제공하고, 고객은 물론 환경, 사회의 폐인 포인트까지 해결해 영속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KT, ‘한국판 뉴딜’ 지원... 협력 TF 신설

박윤영 사장 지휘... ICT 역량 집중

KT가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인력 투입에 나선다.

KT는 ‘한국판 뉴딜 협력 TF’ 조직을 신설하고, 박윤영 기업부문 사장에게 TF장을 맡겼다고 6일 밝혔다. 200여명 이상 임직원들에게 B2B, AI, 클라우드 등 관련 사업을 준비시킬 예정이다. 참여인원은 사업 진행에 따라 확대할 방침이다.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산업의 디지털화를 가속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국가 프로젝트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2대 축으로 구성된다. 디지털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이번 TF는 5G 전국 커버리지 확보, 5G SA와 28기가헤르츠(㎐) 상용화 추진, 인빌딩 중계기 구축 등으로 망 투자를 확대해 정부 정책에 동참한다. 비대면 사업 육성 분야에도 관련 기업 및 기관과 손잡고 협업할 예정이다.



KT 직원들이 5G 인빌딩 기술을 테스트하고 있다.

/KT

KT는 서울아산병원과는 비대면 영상솔루션과 사물인터넷 기기, 그리고 로봇 등을 활용한 언택트 진료환경 개발을 진행하기로 했다. 현대중공업그룹과는 현대로보틱스에 500억원 자본투자를 통한 지능형 서비스로봇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공동구와 재난대응 관련 시설에도 디지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KT는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인프라 관리 혁신 기술을 개발했다.

TF는 사업 추진 준비 외에도 ▲스마

트화를 통한 협력사·소상공인 상생방안 도출 ▲4차산업혁명 시대 미래 인재와 시니어 ICT 전문가 육성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고용안정 지원방안 마련 ▲세계 최고 수준의 K방역 모델 개발 및 글로벌 확장 등 산업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윤영 사장은 “KT가 보유하고 있는 5G와 AI 기반의 융합 ICT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한국판 뉴딜의 성공은 물론 타 산업의 혁신을 이끌 수도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한화시스템, 공항공사와 ‘에어택시’ 만든다

‘도심항공교통’ 업무협약

한화시스템이 한국공항공사(KAC)와 손잡고 본격적인 에어택시 사업모델 개발에 나선다.

한화시스템은 한국공항공사와 지난 3일 오후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 한국공항공사 사옥에서 ‘UAM 세계시장 선도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한화시스템과 한국공항공사는 이번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양사 간 워킹 그룹을 구성해 UAM(도심항공교통) 통합 감시·관제·항로운항·이착륙 시설·탑승 서비스 관련 소요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UAM 운항 실증을 위한 단계별 테스트베드를 구축한다.

한화시스템은 지난 2019년 7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UAM 시장에 진출해 에어택시 기체 ‘버티플라이’와 운항관련 통합 솔루션을 개발 중이며, 한국공항공사는 국내외 공항의 건설·운영을 고도화하고 자체 항행장비 개발역량을 보유한 공항·항공분야 전문 기업이다.



김연철 한화시스템 대표이사(오른쪽)와 손창완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UAM 세계시장 선도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진행하고 있다.

에어택시 기체 개발은 한화시스템이 담당하고, 시설 인프라 구축은 KAC가 맡아 수익창출 체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협력 분야는 기체·인프라·운항 서비스 전 분야를 아우른다. 주요 협력 사항은 ▲에어택시가 뜨고 내릴 수 있는 도심항공교통용 터미널(vertiport), 관제·항로운항 등 사업모델 개발 ▲핵심 기술과 솔루션 실증 및 단계별 테스트베드 구축 ▲확보 기술 국제표준화 공동 추진 ▲국내 성공모델 확보를 통한 글로벌 사업 진출 등이다.

/양성운 기자 ysw@

LGU+, 자회사와 아이돌 예능 콘텐츠 제작

LG헬로비전, 미디어로그와 맞손

LG유플러스가 LG헬로비전, 미디어로그와의 시너지로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콘텐츠 제작에 나선다.

LG유플러스는 자회사 LG헬로비전, 미디어로그와 함께 아이돌 출연 야외 힐링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아이돌Pick(픽)크닉’ 30편을 공동 제작해 ‘U+아이돌라이브’와 LG헬로비전 지역채널

을 통해 단독 공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자체 제작 프로그램은 각 사고 유 역량을 바탕으로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했다. LG유플러스는 U+아이돌라이브 오리진 콘텐츠 제작 경험을 바탕으로 콘텐츠 기획에 참여했다. LG헬로비전은 다년간의 방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기획, 제작 경험을 활용해 콘텐츠 제작을 맡았다. 미디어로그는 방송 이후 콘텐츠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아이돌Pick크닉은 영화배우 신현준과 개그맨 이승윤이 고정 MC로 출연한다. 게스트 아이돌과 함께 지역의 일자리, 먹거리, 볼거리를 체험한다.

/김나인 기자

현대L&C ‘지붕방수시트’로 외장재사업 진출

현대L&C가 고품질 지붕 마감용 제품을 중심으로 외장재 사업에 본격 뛰어들었다.

이를 통해 3년 내에 국내 TPO(Thermoplastic Olefin) 방수시트 1위 기업 도약을 목표로 하고 나섰다.

현대L&C는 건물 지붕 외장재 TPO 방수시트를 출시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인테리어 내장재 또는 내·외장 겸용 제품을 주로 선보여 온 현대L&C가 외장재 전용 제품 양산·판매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TPO 방수시트는 생산 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전혀 발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철거 후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지붕 외장재로, 물병이나 밀폐 용기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친환경 소재 폴리프로필렌(PP)을 기반으로 생산한다. 현대L&C가 선보이는 TPO 방수시트는 습기, 비, 바람 등 외부 자연 환경에 노출되더라도 방수 등의 주요 기능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높은 내구성을 갖추고 있어 비용 절감 효과가 뛰어나다.

/김승호 기자 bada@